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소장 취임



◀ 이재용 소장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007년 3월 5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재용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재용(李在容) 신임 소장은 1975년 경북 군위 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9년 농림부 축산국 서기관, 2002년 축산국 축산경영과장(부이사관)을 역임하고 지난해에 퇴직하였다.

특히, 이재용 소장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근무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제 도입시 제도의 실시 여건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그 동안 농림부 축산국 등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축산행정 및 현장경험 등을 토대로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활성화와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4년 3월 2일부터 3년간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이끌어 온 김경남 전 소장은 지난 3월 2일 퇴임식을 가졌다.

김포축협

김포금란 작목반 구성 본격활동



최근 계란유통의 신 블루오션을 제시하며 양계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이 지난달 27일 조합회의실에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김포금란' 작목반을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김포금란작목반은 총 11농가로 사육규모는 32만3천수이며 고품질 계란생산을 위해 계란품질의 규격화, 생산표준화하고 생산, 출하, 계산 등을 모두 공동으로 하게 된다.

김포축협은 작목반 구성에 앞서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 김포계란유통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김포축협은 김포금란작목반을 통해 월 1천5백톤의 사료판로를 확보하게 됐으며 양계분야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했다.

임한호 조합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김포축협은 산란계 계열화 사업을 통해 지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간에 편익에 치중하지 않고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김포금란 브랜드를 육성,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목반장에는 임재룡 전 김포채란지부장이 선출됐으며 감사 김응실, 운영위원 이효재, 이태중, 총무에 김성태 씨가 각각 선출됐다.

KISTOCK 2007 기자간담회 9월에 대전에서 개최



2007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7)가 2005년에 이어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축산회관 6층 중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2007년 9월 12일~14일, 3일간, 총면적 11,050㎡, 605부스 규모로 이루어지며 친환경 축산과 한국축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비즈니스 국제축산박람회로 거듭난다는 취지이다.

올해는 박람회 공식 행사명을 변경(대전국제

축산박람회)하여 대전시의 유·무형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5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150% 전력확보와 냉방효율, 부스배치 기준 마련, TFS 구조의 텐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객감동센터 가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28일 기존의 ‘종합민원실’을 ‘고객감동센터’로 개편하고 현 판식을 가졌다.

검역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높은 성과를 올린 데 만족하지 않고 고객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감동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고객감동센터’ 설치를 계기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는 물론, 검역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자료를 비치하고 FAX, 전화기를 설치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자기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체지방분석기, 혈압계 등을 설치했다.

축산식품 표시방법 해설서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 등이 우유, 햄 등 축산식품의 표시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한 『알기쉬운 축산물의 표시기준』 해설서를 발간, 전국 교육



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동 해설서에는 지난 1년간 검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등이 문의한 주요내용 79건을 발췌, 질의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질의 빈도는 제품의 원료명과 그 함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문의 32건(40%), 제품명의 적절성에 관한 문의 10건(13%), 표시단위 등에 관한 문의 7건(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원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은 동 해설서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생산자에게는 표시기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축산식품에 올바른 표시를 하도록 하고, 학교 단체 급식소와 소비자 등에게는 안전 축산물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축산 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본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8)로 문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양계농협

2007년도 정기대의원회 개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달 23일 서울 한강호텔에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지난해 사업 결과 17억9천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출자배당금 9천8백만원과 이용고배당금 4천9백만원 등 총 1억4천8백만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임직원들까지 납입출자에 참여해 2%대의 자기자본 비율을 4%대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오정길 조합장은 “지난해는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전조합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조합의 생산성을 높여 조합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정기총회 개최



(사)축산물HACCP기준원(원자 광형근)은 3월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6년 결산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올 지출예산으로 22억 5천여만원을 의결하였다. 2007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HACCP적용의 확대 및 활성화, 고객만족도 제고, HACCP 교육기관으로의 역량강화, HACCP 전문지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이사회(2월 26일)에서 승인된 HACCP 인증 수수료 규정은 총회에서 보고 한 대로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출장비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



한미FTA 추진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린 19일 오전, 같은 시각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는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한미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과 한미FTA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정문 옆 잔디밭으로 이동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에는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강준수 양육협회장, 전기현 양봉협회장 등 축산업계 단체장 대다수가 함께 했다. 이들은 고위급 회담이 끝나는 21일까지 단식을 실시해 우리 농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농어민신문 2007 축산포럼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07 축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해상 농림부 차관을 비롯한 축산관계자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축산정책 진단, 축산정책의 핵심사항과 개선방안, 축종별 핵심수급동향, 축산업계 주요현안과 해결과제,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핵심사업, 사료·동약산업 장기전망과 해결과제 등 축산분야의 주요사안에 대한 발표와 정책제안 의견을 나누며 4시간여에 걸쳐 포럼이 진행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상반기 정기교육 개최



지난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7년도

상반기 농산물 명예감시원 정기교육에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감시원의 농산물 부정유통 감시·신고 역량을 제고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3월경 수입쌀의 시중유통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역할과 신고요령 등 교육을 통한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및 감시·신고활동을 계획하여 소비자 구매에 있어 원산지 식별능력을 배양하여 민간 감시기능 향상을 제고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 HPAI 발병원인 규명을 위한 학술포럼 개최



지난 15일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HPAI 발병원인 규명을 위한 학술포럼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현황과 시대책’에 대해 (주)하림의 이문용 대표이사과 ‘시 발병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종오리 농장의 전파, 국내 서식하는 텃새의 인해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추정하지만, 현재까지 철새로 인

한 전파로 의견이 좁혀지는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국내외 발병한 바이러스 및 피해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도왔다.

또한 국내에서는 HPAI의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닭고기·계란 소비의 하락에 따라 언론의 과잉 보도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미국 시장진출



농협목우촌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농협목우촌(사장 이정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잠실 롯데호텔 3층 펠름에서 미국 동부 최대 한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H마트(대표 권일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H마트는 이용객의 80%가 한인교포로 토종 브랜드인 또래오래가 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호 사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의 경우 현지 입맛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가맹점 관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또래오래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한인시장 공략 후 현지화 하는 전략을 택하였다.